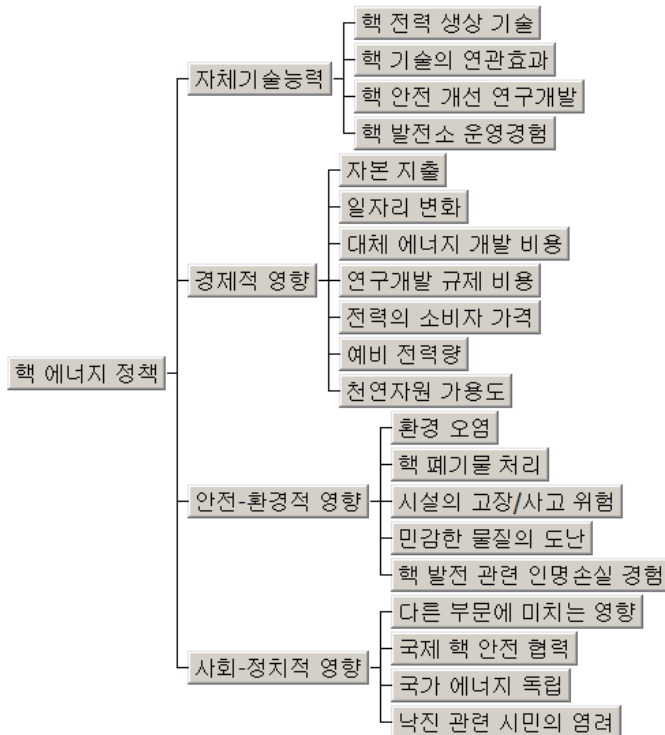


핵 에너지 정책

1 950년대와 1960년대에 건설된 초기의 핵발전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었었고 국가적 기술의 진보로 자랑스럽게 환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업의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핵전력이 미래의 에너지라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핵발전소 관련 사고들로 인하여 핵 에너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 되었다. 1980년에 미국에는 74개의 핵발전소가 있었으며 108개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었다. 쓰리마일 섬 사고 이후, 미국 정부는 5년 동안 새로운 핵발전소의 건립이나 승인을 중지시켰다. 1986년 3월까지 75개의 핵발전소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5개 이상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었다. 현재 미국에서 핵발전 전력은 총 전력의 약 15%를 차지하여 석탄 발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석유가격 하락과 체르노빌 사고 이후, 핵발전에 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핵발전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것인가, 안전조치를 강화 하면서 단계적인 건설 중지를 시행할 것인가, 핵발전을 장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정부, 유틸리티 회사, 그리고 핵발전 산업을 대표하는 3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판단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었다. 기술적 관점에서 핵생산기술, 핵기술의 연관효과, 핵안전 연구개발, 핵발전소 운영경험 등이 고려되었다. 경제적 영향으로는 필요한 자본지출의 정도, 직업 조정, 대체에너지 개발 비용, 핵 연구개발 억제 비용, 전력의 소비자가격, 전력 공급의 풍부함, 천연자원의 가용 정도 등이 고려되었다. 안전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는 오염 위험,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고장 등), 위험한 물질의 도난, 인명상실의 경험 등이 고려되었다. 사회·정치적 영향으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적 협력, 외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대중의 염려 등이 고려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의사결정이 그룹으로 이루어졌다.



대안
핵 발전시설 폐기
새 시설 중단/핵 안전조치 강화
핵 발전 촉진